

데카르트의 동물론에서 자동기계와 감각의 문제

: 데카르트주의적 ‘동물기계’의 한계 넘어서기*

이 경 희**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프랑스철학, 데카르트철학

주요어 데카르트, 동물, 자동기계, 동물-기계, 감각, 데카르트주의, 기계론적 관점

요약문

데카르트에 있어 동물의 감각력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그의 ‘자동기계’론이다. 그는 『방법서설』에서 동물의 신체를 인간이 만든 ‘자동기계’와 비교해 신이 만든 더욱 정교한 ‘기계’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후 일반적으로 ‘동물’과 ‘기계’를 결합한 ‘동물기계’론의 배경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는 단지 동물‘만’이 자동기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전반적인 그의 과학적 기계론 또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연장선에서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까지도 기계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그는 동물의 운동을 모두 기계적인 원리로부터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을 기계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론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기계론적 관점의 경우 이는 데카르트에 있어 동물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팅엄이 말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동물들을 “기계” 또는 “자동기계”라고 규정한 것만으로 단순히 데카르트가 당연히 동물의 감각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데카르트의 주된 입장은 그 초점이 동물-기계-감각의 부정이라는 문제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일부 극단적인 데카르트주의자들의 입장과 달리 결코 동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27-A00210)

** 연세대학교

물의 감각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일관적으로 동물의 감각력을 부정했다는 결론만을 수용했던 기존의 일부 이론에 대해 과도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동물론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마크 롤랜즈(Mark Rolands)는 『동물의 역습』(*Animals like us*) 머리말 첫 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¹⁾ 그리고 그 옳지 않은 방법을 보여준 서양철학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례이자 이런 방법의 정당화 또는 적법화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 온 대표적 인물로 데카르트를 거론한다. “만약 당신이 17세기나 18세기에 사는 동물이었다면 데카르트학과 과학자들은 꼭 피해 다녀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잡히는 순간, 당신은 해부대 위에서 산 채로 못 박혀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밖으로 꺼내지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 . . 그들은 동물이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다.” 롤랜즈가 이렇게 ‘그들이 믿었다’고 철석같이 알고 있는 데카르트 학파의 주장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데카르트의 ‘로봇과 같은 동물’²⁾이라는 생각으로 소급된다. 롤랜즈는 결국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동물이 아픔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가 동물은 “로봇”과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롤랜즈가 ‘로봇’이라고 표현한 것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 V부에서 동물의 신체를 인간이 만든 “자동기계(automates)”와 비교해 신이 만든 더욱 정교한 “기계”(comme une machine)³⁾라고 한 것에서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은 이후 일반적으로 ‘동물(bête)’과 ‘기계(machine)’를 결합한 ‘동물기계’론의 배경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⁴⁾ 문제는 이렇게 조합된 “동물-기계”론이 데카르트의 실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개 ‘부정적인’ 동물관, 특히 ‘동물해

1) 마크 롤랜즈(Mark Rolands), 『동물의 역습』(*Animals like us*), 15쪽.

2) 롤랜즈, 같은 책, 22쪽.

3) AT VI 56

4) Katherine Morris, “Bêtes-machine”, in Descartes’ *Natural Philosophy*, ed. by Stephen Gaukroger 참조, 또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다비드 르 브르통, 90쪽.

방론자’ 등과 같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생체실험 등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하는 등⁵⁾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롤랜즈가 “철학이란 위험한 물건이다. 철학은 당신에게 온갖 어리석은 생각을 믿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카르트학과 과학자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론에 세뇌당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⁶⁾ 스스로 실제 데카르트가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면서도 결국 데카르트주의란 용어의 성립에서 이미 데카르트를 추종하기 때문에 생겨난 입장이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노력 없이 데카르트를 자신이 주장하려는 결론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데카르트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말브랑슈는 “그들은 기쁨 없이 먹고 고통 없이 울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한다. 그들은 아무 것도 욕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알지 못한다”⁷⁾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곧 데카르트의 주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주의를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선부른 편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동물에 관한 입장이 아니더라도 말브랑슈의 입장은 여러 곳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롤랜즈처럼 생각할 때 어리석고 위험한 철학은 “동물의 고통 등 ‘느낌’을 부정하는 철학”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데카르트의 철학이 될 것이다.⁸⁾ 데카르트의 동물관에 대한 이런 롤랜즈의 입장은 다만 그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책의 영어 원제목인 *Animals like us*에 비해 ‘동물의 역습’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번역어가 선택된 것은 한국에서도 현재 인간을 제

5) 다비드 르 브르통, 같은 책, 90쪽.

6) 롤랜즈, 앞의 책, 20쪽.

7) Nicholas Malebranche, *Œuvres complètes*, ed. G.Rodis-Lewis, Paris: J.Vrin, 1958-70, II, 394.

8) 롤랜즈, 같은 책, 20쪽, 또 브르통, 앞의 책, 같은 곳. “그(데카르트)는 인간이 동물들을 노예처럼 사용하도록, 과학자들이 그것들에 대해 실험을 하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즉 기계장치가 어떻게 고통을 느끼겠는가?”하고 반문한다.

외한 ‘동물’ 등 다른 종과 관련해 사태를 인식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더욱 절박한 심정이 깃들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실제로 위에서 본 것 이상으로 책의 내용 역시 동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 토대를 둔 인간의 태도를 ‘동물실험’ 등 자극적인 사례들을 들어 급진적으로 반성하고 이에 대한 서양사상의 기초를 비판함으로써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번역어를 문제 삼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 책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도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이라는 개념까지도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윤리학에 관심이 모아지고 이것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학 내에서의 구체적인 이론의 차이나 쟁점들을 보다 시간과 공을 들여 다른 곳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런 흐름들이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자연관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편에서 논의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이 필요하다는 데자르맹과 같은 학자의 주장이 있는 것처럼⁹⁾ 어떤 면에서도 과도한 일반화를 피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롤랜즈의 표현은 다소 과격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여러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동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반성하고 그 태도의 기초로서 역시 ‘옳지 못한 사상’을 비판하는 데 있어 아무리 예외를 인정한다 해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핵심 인물로 데카르트를 떠올리는 것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당연한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과연 그렇게 어리석은 이론을 말한 위험한 철학자인가? 나아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도록 진짜로 데카르트가 동물의 고통을 부정했을까? 그의 ‘동물-기계’론은 동물의 아픔을 부정하는 결론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가?

9) 데자르맹,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23쪽.

2. 논의의 배경

코팅엄(Cottingham, John)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데카르트가 동물들을 “기계” 또는 “자동기계”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결코 동물의 느낌을 ‘당연히’ 부정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¹⁰⁾ 그는 여기서 데카르트를 ‘동물들은 느낌(feeling) 또는 어떠한 종류의 인식(awareness)도 갖지 않는다’는 ‘괴물같이 끔찍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공인된 해석을 내놓은 대표적 학자로 깁슨(A. Boyce Gibson)을 거론하고 있다. 그 공인된 관점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최근의 여러 저서들에서도 되풀이 되어 왔으며 그것은 데카르트를 동물들이 단지 ‘그들이 말하자면 발로 채이거나 칼에 찔렸을 때 마치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다만 행동할 뿐이라는 그의 추정된 견해에 적합한 약역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어 온 해석을 위한 기초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동물기계’론으로서, ‘살아있는 것들의 오래된 친밀한 유대관계를 야수적으로 잔인하게 침해한’ ‘기계적으로 의식화된 시대의 냉혹한 전조’라고 혹평했던 학설이라는 것이다.¹¹⁾

동물의 감각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데카르트의 동물 뿐 아니라 인간과 세계 이해에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일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의 동물론에 대해 보이고 있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의식’이나 ‘생각’ 등 개념에 있어서의 의미 또는 사용의 변동이든 철학의 세분화든 나아가 경험론적 탐구 경향의 심화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¹²⁾ 지금까지 동물에 대한 데카르트에 대한 해석이 여러 잘못된 오해로

10) John Cottingham, “A Brute to the Brutes? : Descartes’ Treatment of Animals”, in *Philosophy*, Vol.53, No. 2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Oct., 1978.

11) A. Boyce Gibson, *The Philosophy of Descartes*, London: Methuen, 1932, 214쪽, 코팅엄, 같은 글, 같은 곳, 재인용.

점철되어 왔다는 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나는 여기서 데카르트의 동물론에 관련해 기계와 감각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무심하게 너무도 식상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그에 따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동물의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흐름에 대해 일종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복잡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최소한 데카르트가 분명하게 언급한 동물의 생각과 감각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과연 그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만일 그가 동물 이해와 관련해 감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데카르트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철학에 대한 이해반경을 확장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데카르트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인식론이나 형이상학에 대한 편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그의 자연학적 탐구와 더불어 정념론이나 도덕학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때 동물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연학, 감응력(유정성), 느낌, 감각 등 동물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대 동물론의 개념 사용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데카르트의 개념 사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보고자 한다. 데카르트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있고 그가 말한 그대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무리하게 또는 대충 꿰어 맞추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고스란히 들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동물들은 단순한 기계라고 할 때 당연히 데카르트가 동물은 감각 또는 느낌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보다도 우선 데카르트를 엄격한 이원론자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많은 데카르트 추종자들은 감각과 느낌을 오직 정신, 즉 물질과는 구

12) Katherine Morris, "Bêtes-machine", in *Descartes Natural Philosophy*, ed. by Stephen Gaukroger, 401쪽.

별되는 비-물질적 실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여기서 자동기계로 규정된 동물들은 정신이라는 실체를 갖지 않은 것으로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동물들은 느낌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데카르트의 동물론이 그의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는 점을 인식할 때 여기서 그 배경으로서의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는 틀은 감각의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영향의 문제는 이원론을 고수할 때 정신과 신체 각각의 독립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이후 끊임없는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그가 내세운 대안, 이를테면 송과선의 경우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해야 하였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입장 외에 그에게서 인간의 감각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그의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또 다른 관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데카르트의 동물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데카르트에게는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원론자의 입장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고크로저가 밝히고 있듯이 18세기의 데카르트는 위험한 유물론자로 읽혔으며 20세기에는 전형적인 이원론자로 낙인찍혔다. 20세기의 이러한 해석은 특히 『성찰』을 정전으로 취급한 결과로 그는 보았다. 고크로저가 주목한 것은 데카르트의 명성이 수학, 우주론, 기계론적 생리학, 형이상학과 인식론으로 시기를 달리하며 옮겨 간 것은 학문 경향의 시대적 흐름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모든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면모들이 데카르트에게 모두 들어 있다는 점이다.¹³⁾

동물들은 살아있고, 그것들이 그들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며 또한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움직인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고대의 사상가들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모두에게 낮은 단계의 영혼 형식, 즉 동물 영혼(animal soul)을 귀속시킴으로써

13) Stephen Gaukroger “Life and Works” in *A Companion to Descartes*, ed., by Janet Broughton, 3쪽.

그러한 공통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이 공통의 동물영혼이 인간과 동물 안에 비슷하게 있는 감각력(sentience)을 설명하며 또한 인간은 거기에 덧붙여 지성적인 영혼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를 추종한 중세 철학자들은 인간과 동물 영혼들이 모두 영양(nutrition), 성장(growth)과 재생(reproduction)을 위한 식물적인(vegetative 또는 vital생명의) 능력들과 감각(sensation)과 운동을 위한 감각적인(sensitive) 능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단지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⁴⁾

데카르트가 동물에게서 어떤 종류의 영혼 또는 정신적 실체도 거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는 동물들의 생명력과 감각력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야만 한다. 동물 신체들은 환경적 상황에 적응하는, 또한 필요할 때 먹고 마심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는 기능적 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이전 사상가들은 그러한 기능적 통합과 목표-추구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 영혼을 거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동물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는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유동적인 상황에 들어맞도록 조절하는지의 방법 등을 동물 영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데카르트는 동물들의 생리학적이고 행동적인 능력들을 설명하게 될 유물론적 기계론(material mechanisms)을 발견하거나 가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형이상학적으로 그의 새로운 전망은 감각적인 영혼과 같은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결여한 순수하게 물질적인 구조로만 간주된 동물 신체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unity)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동물의 감각

데카르트는 1649년 2월 5일 모어(More)에게 편지를 보내 동물의 감각

14)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 30-35쪽.

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디 내가 생각(thought)에 관해 말한 것이지 생명(life)이나 감각(sensation; sensus)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동물들에게서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단지 심장의 열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신체 기관에 의존하는 한 나는 심지어 감각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의견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피타고라스의 미신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미신은 그들이 동물들을 죽이거나 먹을 때 죄의 혐의로부터 면제해주기 때문인데- 관대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동물들에게도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¹⁵⁾

이와 같이 데카르트는 생각과 감각의 문제를 구별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작품들이 아닌 편지들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데카르트는 동물들에게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동물들이 ‘느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때때로 동물들이 배고픔 같은 감각들 또는 공포, 희망 그리고 기쁨 같은 정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¹⁶⁾ 여기서 그는 인간들에 있어서도 동시에 사랑, 미움, 화, 등등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는 동물정기들(les esprits animaux)의 움직임에 관해 논하고 있다. 특히 데카르트는 “먹고 싶은 기대”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희망 또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동물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동물들이 그들의 정감(emotions) 또는 정념(passions)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언급들은 [네 번째 답변] 등 다른 곳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데카르트는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동물 신체가 갖는 “정념passions”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생각(thought) 없이도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뿐만

15) AT V 278-9: CSMK 366.

16) 1646년 11월 23일 뉴캐슬에게 보낸 편지, AT IV 574-75: CSMK 303.

아니라 동물의 행동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¹⁷⁾ 문제는 데카르트 이후의 학자들이 실제 데카르트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의 학설에 대해 모든 느낌은 생각이며 만일 동물들에게 느낌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동물들에 있어서의 비물질적인 영혼의 존재를 함축할 것이라는 당시까지의 통상적 근거 위에서 동물들에게 느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대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말브랑슈(Nicholas Malebranche)는 만일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신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던 피조물들에게 부당하게 죄를 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잠깐 살펴 본 것처럼 ‘동물animal’이라는 용어는 어원상 라틴어 anima(‘영혼soul’)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들(living things)은 그것들이 ‘활동성이 부여되었다animated’거나 또는 ‘영혼이 붙여넣어져 있다(ensouled)’는 이유로 무생물과 다르다는 스콜라철학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개념은 부분적으로는 ‘생명의 숨결breath of life’로 활기가 붙여넣어진 것으로서의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성서적 개념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서 본 것처럼 결국 부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전까지의 이런 입장들은 결국 살아있는 것들에게 어떤 서열, 구체적으로는 기능에 있어서의 서열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영혼soul’, 즉 ‘움직일 수 있는(locomotive)’, ‘감각이 있는’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배치된 ‘이성적인’ 영혼으로 불리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거부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철학의 전통을 일소하는 과정에서 데카르트가 그의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실체적 형상(substantial form)’이라는 비합리적인 스콜라철학의 개념을 폐기하게 된 점이나 특히 동물-기계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작동시키는 데 핵심적인 신비한 힘(occult forces)으로 이루어진 자연 세계를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7) CSM II 161, AT VII 229-30; CSMK 149; AT III 122.

이렇게 전통적 영혼론을 전격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는 다만 오직 한 가지, 즉 인간에게 이성적인 영혼을 귀속시키는 점만을 남겨 두었다.¹⁸⁾ 그런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도 무의식적인 기능들(non-conscious functions)의 경우에 있어 그는 모든 관련 행동들은 어떠한 ‘활기를 불어넣는(animating)’ 원리를 상정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팅엄도 지적하고 있듯이 데카르트는 사실상 개, 고양이 또는 원숭이와 같은 피조물들을 기술하기 위해 이 ‘anima’가 연상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피했으며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b te(짐승)라는 단어나 또는 라틴어 brutum(야수)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¹⁹⁾

4. 자동기계

데카르트에 있어 동물의 감각력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물론 그의 ‘자동기계’론이다. 그는 잘 알려진 『방법서설』 V부에서 자동기계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는 단지 동물‘만’이 자동기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보다 전반적인 그의 과학적 기계론 또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연장선에서 동물뿐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신체까지도 포함해 기계론적 생리학이라고 할 만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신체를 “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 고안될 수 있는 어떠한 기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잘 정교하게 배치된 하나의 기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⁰⁾ 이런 그의 이야기는 앞의 모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또한 인간은 생각(thought)이 없이도 움직일 수

18) AT XI 143: CSM I 102; AT VI 59: CSM I 141.

19) Cottingham, *A Descartes Dictionary*, 15쪽.

20) “comme une machine qui, ayant été faite des mains de Dieu, est incomparablement mieux ordonnée . . . qu’aucune de celles . . . inventées par les homme”. AT VI 56: CSM I 139.

있는 다양한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인공적인 자동기계들보다 훨씬 더 근사한 그 고유의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자연의 자동기계들은 동물들이다.” 나아가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근본적인 관점은 그는 동물의 운동을 모두 기계적인 원리로부터 해석하고자 하며 이는 그 이전까지의 스콜라철학에서 목적인을 통해 설명하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작용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이렇게 동물을 기계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론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기계론적 관점의 경우 이는 데카르트에 있어 동물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단순히 데카르트의 동물이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시 자동기계라는 개념이 줄 수 있는 매혹은 현대적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잔인함이나 폭력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원시적 힘으로 가려있던 알 수 없는 세계를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밝혀줄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와 병행하는 것이다. 코팅엄에 따르면 17세기의 쓰임에서 하나의 자동기계는 단지 하나의 스스로-움직이는 것, 즉 움직이기 위해 외적 자극에 의존하기보다 운동의 내적인 원리를 포함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라이프니츠 역시 인간의 영혼을 ‘일종의 영적 자동기계’²²⁾라고 묘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명시적으로 그가 그 용어를 ‘움직이는 기계’(machine mouvante)²³⁾로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다시 말해서 인간이나 동물을 하나의 기계 또는 자연의 자동기계로 묘사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노력은 그 기능 작용이나 행동에서의 반응들이 어떤 ‘운동령 locomotive soul’과 같은 신비한 내적 원리들을 가정하지 않고도 적

21) 1649년 2월 5일 More에게 보낸 편지, AT V 276.

22) 『변신론』 Theodicy[1710], I 52.

23) AT VI 55: CSM I 139.

24) Cottingham, 앞의 책, 20쪽.

절한 외적 자극들과 함께 그 내적인 부분들의 미세하게 조직된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는 『인간론』에서도 모든 범위의 인간 행위들은 ‘시계 또는 인공적인 분수 또는 풍차(horloge, fontaine artificielle, moulin)’와 같이 오직 관련 기관들의 배열에만 배치(la disposition des organes)²⁵⁾에만 의존하면서 순수하게 그것 고유의 내적 원리들에 부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la force)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의 작동에 귀속된다고 한 적이 있다.

데카르트가 동물을 기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를 감각에 대한 부정으로 본 학자들이 데카르트 해석에 있어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김승은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는 “데카르트가 목적과 느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그 용어(mechanism)를 사용한다”고 말한다.²⁶⁾ 캠프 스미스도 유사하게 데카르트의 언급으로부터 그가 동물들에게서 느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결론을 끌어냈다.²⁷⁾ 물론 ‘자동기계’의 개념, 정확하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자가-작동(self-operating)하는 기계’로서 논리적으로 느낌의 결여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논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달리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와 같은 사람은 동물들이 자동기계라고 해도 감각적일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비록 우리가 야수들이 무의식적인 기계들이라는 데카르트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들을 자동기계로 간주하는 점에서 틀렸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야수들은 얼마간 더하거나 덜하거나 의식적인, 감각적 자동기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수들이 의식이 있는 기계들이라는 견해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채택되는 것이다.”²⁸⁾ 고크로저도 동물들의 행동능력을 설명하

25) AT XI 120; CSM I 99.

26) A. Boyce Gibson, 앞의 책 *The Philosophy of Descartes*, 211.

27) Kemp Smith, *New Studies*, 135.

28) Thomas Huxley, *Method and Result*, New York: Greenwood Press, 1968, 237.

면서 감각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는 데카르트가 동물들이 각각 다른 환경적 자극들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차별적인 감각적 반응들을 동물들에게 할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또한 동물들에게 “자극들을 해석”하고 “재현된 표상들(representations)”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정보처리 능력을 귀속시켰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²⁹⁾ 그는 이러한 재구성이 “동물 인지능력(animal cognition)을 해명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동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한”³⁰⁾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동물들을 “감각이 있지만 의식은 없는 자동기계들”의 지위를 부여한다.³¹⁾ 결국 이런 해석에서 동물들은 자극들을 표상하고 해석하는 덕분에 감각력을 갖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비-의식적인(non-conscious) 이유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반성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자동기계인 이유는 그것들의 감각적 상태들이 비-물질적인 정신을 결여하고 있는, 기계론적으로 생각된 물질적인 몸 안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기계적인 자동장치로서의 동물이라는 데카르트의 설명은 그의 이원론과 결합될 때 가장 악명높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문제는 언어, 자의식, 의식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res cogitans)은 데카르뜨에게 있어 자의식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며 원리적으로 자기고유의 본성과 존재를 반성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되는 것(res extensa)은 대조적으로 그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면에서만 특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크기, 형태 그리고 운동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술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동물들을 자동기계라고 할 때 동물들이 이 구도 내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할 때 동물들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연장되는 물질 덩어리로서 부분들로 조직되어 있

29) Gaukroger, S., *Descartes System of Natu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03.

30) 같은 책, 200.

31) 같은 책, 203.

다는 점에서 충분히 복잡적이지만 그럼에도 의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은, ‘내면의 생각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기호’³²⁾로서 데카르트는 이것을 동물들이 총체적으로 생각을 결여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로 포착하기도 하였다.

인간과 짐승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너무나 둔하거나 멍청하고 심지어 미친 경우라도 다양한 말들을 함께 배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은 결코 없다. 이것은 동물들이 필수적인 기관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데 왜냐하면 까치와 앵무새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어들을 입 밖으로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없는데 즉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귀먹고 병어리인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짐승만큼 심지어 그 이상 발화 기관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개 그들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고유한 기호들을 발명해 낸다. . . . 이것은 단지 짐승들이 인간들보다 이성을 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³³⁾

사실상 데카르트는 이어 동물들의 발성을 진정한 언어와 비교하는 흥미로운 논증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앵무새처럼 ‘말하는’ 경우를 포함해 그들이 입 밖으로 내는 소리를 언어 사용과 비교하기도 한다. 데카르트가 언어사용과 관련된 이성을 동물들이 결여했다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각(sensation)의 본성에 관한 데카르트의 입장이다. 그는 최소한 지금까지로 봐서는 동물들이 앞에서 열거한 진짜 생각이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쟁점이 되는 것은 감각이다. 나는 동물의 감각과 관련해 이 문제

32) AT V 278: CSMK 366.

33) AT VI 57-8: CSM I 140.

를 다만 데카르트의 동물론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에서의 근본적이고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의 IV권에서 인간의 감각(sensus)과 느낌들(affectus)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 데카르트가 익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영적인 기쁨 (spiritual joy)’을 느낀다. 이것은 일종의 pura cogitatio(육체적인 느낌 없이도 가능한 순수하게 지적인 즐거움)로서 추측컨대 신과 천사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식이 상상력에 포착되어 파악되면 ‘동물정기’가 뇌로부터 심장의 근육으로 흐르게 되며 그것은 차례로 더 많은 ‘움직임들’을 뇌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동물적 기쁨 laetitia animalis’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³⁴⁾ 재미있는 점은 데카르트가 기쁨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상태로 간주된다거나 따라서 ‘생각하는 것 res cogitans’의 영역에 확고하게 국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분명 한 편으로 기쁜 소식에 대한 순수하게 지성적인 이해와 다른 한 편 기쁨에 대한 느낌(affectus: feeling) 사이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느낌은 ‘동물적 기쁨 laetitia animalis’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감각³⁵⁾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얼마간 심장 근육들과 뇌의 동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심장근육이나 뇌의 동요로 설명되는 것은 분명 그가 말한 대로 ‘동물적’인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생리학적인 설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동물적 사건에 분명히 정신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술어인 ‘laetitia’를 붙여 동물적 기쁨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서도 감각의 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이원론자의 지위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이미 이러한 이원론 대신 정신과 실체의 합성체라는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느낌들(feelings) 또는 배

34) 『철학의 원리』, IV 190: AT VIII 317.

35) 『철학의 원리』, 원석영 역, 432쪽 번역 참조.

고품이나 목마름 같은 감각들(sensations)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 및 혼합으로 인해 생기는 애매한 사유 양태로 기술되고 있다. 파일럿이 그의 배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관찰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단지 ‘알아차리기(notice)’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과 신체 사이의 ‘conjunctio et quasi permixtio’가 있다는 것, 즉 논리적으로 구별되며 양립 불가능한 실체들인 것들의 신비스러운 ‘뒤섞임intermingling’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실체적 연합 substantial union’은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중심에서 이원론을 위협하는 가장 독특한 개념이며 이것이 감각의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 감각의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5. 나오는 말

데카르트가 느낌이 단지 정신 또는 영혼만의 순수한 인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실제로 레기우스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만일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res cogitans)이 기만 한 천사가 인간의 몸속에 있다면 우리처럼 느끼지(feel)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천사는 단지 그의 신경계 속에서 변화들을 관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고통의 느낌과 같은 느낌들이 육체와 구별되는 정신의 순수한 인식(purae cogitationes)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와의 실제적인 통합으로부터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혼란된 지각들 confused perceptions’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⁷⁾ 느낌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있어 연장적인 것(res extensa)과의 신비스러운 뒤섞임의 본성에서 동물적 측면이 갖는 어찌면 불가사의한 결과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감각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통해, 말하

36) 『성찰』, AT VII 81: CSM 81.

37) 1642년 1월 레기우스에게 보낸 편지, AT III 493: CSMK 127-128.

자면 정신이나 육체를 독립적으로 설정해 각각의 개별적 영역을 통해서만은 인간의 배고픔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데카르트의 형이상학과 생존을 위한 자연학적 관점에서의 탐구를 고려하지 않고 동물과 동물의 감각 문제를 별개로 취급하는 일은 동물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데카르트가 동물에 관해 논의한 내용들을 일부나마 그의 전체적인 철학적 문제의식의 반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 등은 동물들의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지위를 배제하고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원, 무엇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지, 그것들의 기능적인 유기적 조직화, 그리고 그것들의 감각적이고 인지적인 능력들과 무관할 수 없다.

나는 데카르트의 해석가들의 논변과 함께 데카르트 본래의 주장들을 검토함으로써 데카르트가 동물들에게 감각력을 부여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데카르트가 동물의 감각을 전면 부정했다는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데카르트는 동물 고유의 감각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데카르트 1차 문헌

AT: *ŒUVRES de DESCARTES*, publiées par ADAM Charles & TANNERY Paul, Paris: Vrin, 1974.

CS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I, II*, Cottingham J., Stoothoff R., Murdoch D.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CSMK: *The Correspondence: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III*, Kenny Anthony 외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 데카르트 외 문헌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옮김,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서울: 동문선, 2003.

마크 롤랜즈, 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서울: 달팽이출판, 2004.

J.R. 데자르랭,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고양: 자작나무, 1999.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 서울: 궁리출판, 2001.

Aristotle, Ross, W.D. ed. & Smith, J.A. trans., *De Anima in The Works of Aristotle, vol. III*,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8.

Broughton, Janet & Carriero, John ed., *A Companion to Descart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Cottingham, John. *A Descart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1993.

_____,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escar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_____, "A Brute to the Brutes? : Descartes' Treatment of Animals", in *Philosophy*, Vol.53, No. 2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Oct., 1978.

Gaukroger, Stephen, *Descartes: An Intellectual Biography*, Oxford: Clarendon

Press, 1995.

_____, *Descartes System of Natu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_____, etc. ed., *Descartes Natur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0.

Malebranche, Nicholas , *Œuvres complètes*, ed. G.Rodis-Lewis, Paris: J.Vrin, 1958-70.

Nye, Andrea, *The Princess and The Philosoph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The Problem of Automaton and Feeling in
Descartes's theory of Animals-
Crossing the Border of 'Bêtes-machine' in Cartesianism**

Lee, Kyung-Hee (Yonsei Univ.)

In Descartes, it is his theory of 'automates' that causes the controversy on animal's sentience. He called animal's body a better ordered machine made by God, comparing with 'automaton' made by man in *Discourse on the Method*. After that, this is generally known as the beginning of the theory of 'automates' combined with 'bête' and 'machine' together. This passage doesn't have any such meaning that animal alone is the automaton. He is willing to explain not only animal body but also human body equally from his mechanical point of view. He made an attempt to interpret animal's movements altogether through the mechanical principle. As Cottingham sai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Descartes's animal lacks sentience from that he calls animal 'machine' or 'automaton'.

Descartes's point doesn't consist in the negation of animal's sentience bu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echanic world-view.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that Descartes consistently deny animal's sentience from first to last is too excessive. He is on neutral ground.

Key words: Descartes, animal, automates, Bêtes-machine, feeling, Cartesianism, mechanical point of view.

데카르트의 동물론에서 자동기계와 감각의 문제 / 이경희

이경희 e-mail: ockham@lycos.co.kr

투 고 일	2013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3년 11월 01일
계재확정	2013년 11월 13일